

3/9(수) 스가랴 묵상 22

스가랴 12:1-1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구조적으로 전반부(1-8장)와 후반부(9-14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두 개의 경고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경고는 9-11장이고 두번째 경고는 12-14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스가랴 12장의 내용은 두 번째 경고의 첫번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에워싸이고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

이 경고는 유다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말씀입니다(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 그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즉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로, 하늘을 펴신 분이시다. 둘째로, 땅의 터를 세우신 분이시다. 셋째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공격하시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먼저,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3절,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이라는 무거운 돌을 들다가 오히려 그들이 그 무게로 인해 크게 상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그들을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런데 본문은 왜 이스라엘과 유다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온 유대인들로 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그 이후에 유대인으로 불리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을 ‘화로’와 ‘햇불’ 같이 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하실 것입니다(5-6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아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날에 승리가 보장된 이스라엘의 주민들과 백성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합니다(8절,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와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 주민 중에 가장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을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자 골리앗의 거인 장수를 이긴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스가랴가 다윗을 비유한 것은 아마도 다윗도 이스라엘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삼상 17: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그들이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와 같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온전히 하나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세상과 비교할 때 교회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외모는 자게 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결국에는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비결은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속 4:6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지혜 그리고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 보다 더 강해지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등장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것처럼 승리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목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목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한국을 위한 기도:** 한국의 대선과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새 지도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밀포드 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페루 황윤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